

《나를 위한 연구》

‘써야만 하는 소설’은 나를 억압한다

글 강미(청소년문학가,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

대학 3학년 때 ‘소설론’을 수강했다. 그 수업을 듣던 어느 봄날, 문득 나도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현듯 떠오르긴 했지만 끈질기게 나를 압박하는 그 열망에 따라 나는 처음으로 소설이라는 걸 썼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즐거웠고 고통스러웠다. 나에게 작용하는 소설 쓰기의 마력을 맛보아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늘 소설 주위에서 서성거렸다. 물론 좋은 작품을 만들지는 못했다. 소설은 다정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아 나는 번번이 버림받은 여자처럼 토라지고, 분노하고, 절망했다. 하지만 나는 소설 앞에서는 뺄 없는 못난이었다. 다시 보지 않겠다고 뺀하니 돌아선 건 어느새 잊고 소설로 돌아와 있었다. 글을 통해서만 행복하고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모든 작가가 그러하듯 내게도 쓰고 싶은 소재가 있다. 사회·역사적인 사건과 어우러지는 개인적인 체험인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쓰고 싶은 소설’에서 ‘써야만 하는 소설’로 압박의 강도를 더해온다. 하지만 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건 아마도 내가 까발려지는 두려움, 완전하게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관점, 이미 공시된 사실의 견고함 등이 나와 화자, 주인공을 강하게 억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상률의 《너는 스무 살, 아니 만 열아홉 살》과 《나를 위한 연구》는 내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한 소설이다. 전남대 졸업이라는 그의 약력으로 미루어볼 때 ‘1980년 광주’ 이야기는 ‘써야만 하는 소설’로 작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는 그 일을 해냈다. 역사적 사실이 상상력을 압박하고, 당위가 작가의 자유로움을 압박하는 고통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는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안쓰러움과 기대감으로 책을 폈다.

《나를 위한 연구》는 표제작과 더불어 《아기 업은 소녀》, 《그와 또 그》라는 세 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소설집이다. 모두 1980년 광주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항쟁

십년 후쯤을 서술 시점으로 하고 있다.

《아기 업은 소녀》의 나는 ‘그해 5월’에 어머니를 잃었다. 총 맞은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다 아이까지 낳은 어머니는 그해 여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고, 아버지마저 제정신이 아닌 채 향의시위나 유가족 협회 일 등으로 집에 있지 못했다. 열세 살 어린 나이로 나는 갓난아이를 포함한 동생 셋을 돌보면서 가난하고 곤궁한 삶을 꾸려가야만 했다. 이후 아버지는 끝내 소식을 끊어버리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 어느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된다.

스물다섯 살의 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아기 업은 소녀’ 그림 전시회 기사를 본다. 야근 중에 무시로 떠오르는 그림은 나의 과거를 한꺼번에 호출하여 그해 광주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급기야 다음날 나는 전시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아기 업은 소녀’는 영락없는 자신이었으며 ‘앉아 있는 여인’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귀로’는 돌아갈 곳 없는 자신에 대한 은유였다.

그런데 이날 밤 나는 치근대는 사무장을 따라나섰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만다. 사무장은 ‘그해 5월’의 ‘화려한 휴가’를 지금도 자랑하는 위인인데 성폭행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거리로 뛰쳐나온 나는 그 돈다발을 내던지며, 보상금을 마당에 집어던지던 아버지를 떠올린다.

이 소설은 유사와 대립, 겹침과 병치가 잘 배치된 훌륭한 작품이다. ‘그해 5월’과 ‘십이년 후의 연말’, ‘광주의 도청 광장’과 ‘서울역 광장’, ‘화려한 휴가의 군인’과 ‘사무장’, ‘그해 내 가슴을 만지던 수컷’과 ‘사무장’, ‘그림’과 ‘나’ 등 곳곳에 과거와 현재를 유사하게 혹은 심화 확장시켜 놓는다. 그 중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에서 돌 쪼는 소리를 연상하고 다시 총소리로 이어붙이는 작가의 솜씨는 그저 놀랍기만 하다. ‘써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이만큼 형상화 해내는 작가의 역량을 높이 사고 싶다. 세 작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나를 위한 연구》
박상탈 | 사계절 | 266쪽 | 값 9,800원

〈나를 위한 연구〉는 ‘그해 5월’의 항쟁에 참여했다가 왼팔을 잃고 기억마저 잃어버린 화자의 이야기이다. 노숙자인 화자는 왼팔을 찾기 위해 거리와 경찰서, 병원을 헤매다가 한 간호사를 만난다. 그녀는 광주에서 한쪽 가슴을 잃었지만 광주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삶의 보람과 사랑을 일구어가는 인물이다. 화자는 그녀와의 동거를 통하여 잃어버린 과거와 오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하며 서서히 기억을 되찾는다.

기억상실자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 소설 읽기는 경우에 따라서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다. 집중해서 읽기에는 분량도 꽤 길다. 하지만 십 년을 과거 속에서만 살던 화자가 오늘을 찾는 이야기임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의 불편과 지루함은 참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다보면 흉터만 잡히는 미미한, 간호사의 가슴이 슬픈 영상으로 떠오를 것이고, ‘시민군’의 마지막 저항이 장엄한 감동으로 다가설 것이다.

〈그와 또 그〉는 키 큰 사내(그)와 키 작은 사내(또 그)가 번갈아 이야기하는, 교차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다. 광주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는 회사원인데 출근길에 지갑을 소매치기당하고 난 뒤 회사를 결근하고 산과 거리를 헤맨다. 같은 시각, 그의 지갑을 훔친 ‘또 그’도 한강과 거리를 배회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는 엉겁결에 시위의 주동자로, ‘또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된다. ‘그’를 알아본 ‘또 그’는 간절히 사죄하는 맘으로 ‘그’를 간호한다. 나란히 퇴원을 한 다음 ‘또 그’는 소매치기 때의 정황을 되살리고자 ‘그’와 같이 버스를 탄다. 그러자 ‘그’는 ‘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웃음으로 답하며 서로의 손을 꼭 쥐는 채로 시위대에 끼어든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에 대한 작가 나름의 은유인 셈이다. 하지만 좋은 주제에 비해 서술이 단조롭고 짜임새가 약한 것이 아쉬웠다.

《봄바람》《나는 아름답다》 등, 사춘기의 성장통을 누구보다도 리얼하고 아름답게 그려왔던 던 작가를 기억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다소 낯설 수도 있으리라. 청소년 화자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을 다룬 소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짜야만 하는 소설’ 이기에 재미보다는 주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독자들에게 이 소설에 바쳐진 작가의 순결한 정신과 따뜻한 시선을 눈여겨 봐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나로서는 부럽고 존경스러운 힘이니까. **한민**



● 이 글을 쓴 강미는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1년 우리교육 소설 공모에 〈민세의 골리앗〉이 당선되었고, 2004년에는 단국대학교 주최 교단문예상에 〈겨울, 블로그〉가 당선되었다. 2005년 제3회 푸른문학상에서 〈길 위의 책〉으로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길 위의 책〉을 펴냈고, 재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이다.